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검소한 삶이 수행의 근본

오유지족(吾唯知足) 소견

한국 불교 현대사를 온 신심(身心)을 다해 살아가신 조계종의 큰 어른이었던 석주(晝珠)스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글이 바로 오유지족이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나는 오직 만족함을 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신도들이 글을 받으러 오면 부자가 되는 글이라 하셨다 한다.

스님은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시고, 역경원을 설치하여 한국불교사 사상 최초로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뿐 아니라 포교를 위해서는 항상 글을 써주시고 전지회를 통해 모금한 돈은 전액 불사에 쓰셨다. 스님은 종교 법정 공휴일이 오로지 기독교의 크리스마스만 존재할 당시에



석주 스님의 '오유지족'

는 것은 만족의 핵심은 입에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있는 글자가 식(食)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더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으면 되지 구대여 브랜드가 있는 값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 내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옷은 사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복(福)을 감할 뿐이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일곱 자 되는 방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화려로운 목욕탕을 들고이 갔 나가는 수입대리적으로 화려한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 아무리 화려한 불사를 하더라도 결국 사찰이란 수행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일 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배고픔을 면할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배고픔을 해결하면 그 때부터는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고 포교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 구(口)를 가장 중심에 두고 만족함을 얻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無所有)'라는 글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생전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수행에 필요한 것은 별로 없는 법이다.

검소한 삶을 통해 항상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던 큰스님들이 오늘날과 무척이나 그립다.

보살의 원력으로 다시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들을 제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양심에 귀 기울이면 세상의 진실 보여

다큐 '두 개의 문' 김일란 감독

"제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해서나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면 제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할지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화와 일상의 문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김일란 감독(사진 왼쪽)은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다큐 영화 '두 개의 문' (감독 김일란·홍지유)이 6만 관객을 넘어지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경찰 특공대의 눈으로 바라본 용산참사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시선을 끈 이 영화는 지난 7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무원들이 특별 관람하기도 했다.



용산 참사 특공대 시선으로 기록 6만 관객 돌파 '용산 다시 기억' 총무원장 자승스님 관람 후 희생자 위로하는 천도제 제안

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고 살아남은 이들은 범법자가 됐다. 불법 폭력시위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검찰의 발표, 공권력의 과잉집권이 참혹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가운데, 진실 공방의 긴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진다. 유가족 중의 없는 시신 부검, 사라진 3000쪽의 수사 기록, 삭제된 채증 영상, 어떠한 정보도 하달 받지 못했다는 경찰의 증언...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처음부터 영화를 제작하려는 의도로 자료를 수집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진실을 밝히려려고 하지 않는 이 사건을 알리는 게 우선이었죠. 이후 용산참사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특공대의 시



다큐 영화 '두개의 문'이 관객 5만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경찰 특공대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다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선으로 가보자고 했죠. 가해자의 시선을 통해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둘 모두가 피해자이며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영화는 약자의 편에서 서서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특공대의 법정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그날의 현장을 생생하게 말해준다. 이 방식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건의 참상을 관객들에게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한다.

영화를 본 시민들은 남일당 현장에 모여 촛불 추모제를 열기도 하고 국화꽃을 놓고 가기도 한다. 결국 대법원이 2010년 11월 망루 생존 철거민 7명에게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며 용산의 참상을 덮으려고 했지만 한 편의 영화가 다시 용산을 기억하게 한 것이다.

김 감독은 여성주의 미디어 공동체 '연분홍 치마'에서 활동하며 <3XPTM>(2008년) <종로의 기억>(2010년) 등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를 만들어

왔다. 그녀가 이렇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두가 양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양심에 귀 기울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는 작품을 만들 때는 정말 철저하게 완벽주의자가 된다. "다큐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을 주인공의 인생에 제가 끼어든 거잖아요. 제가 의도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섭외한 인물인 만큼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엄격해야 돼요. 주인공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안고 간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죠"

영화 개봉을 하기 전인 1월에 어머니와 함께 충남 서산 간월암에 다녀왔다는 김 감독. 그때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녀는 오늘도 내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선왕실의 혼례를 엿보다"

의궤, 영남 지역 최초 공개 9월 9일까지 대구박물관서

국립대구박물관 '외규장각 의궤와 조선왕실 혼례이야기'가 9월 9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되었다 지난 해에 우리 결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를 중심으로 한다. 조선왕실 의궤는 국가와 왕실의 주요 행

사 기록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외규장각 의궤는 대부분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한 아람용(御覽用)으로 영남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개된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정조간통천봉도감의궤, 인조국장도감의궤, 인선왕후 국장도감의궤 등 외규장각 의궤 22종을 비롯해 보물 제1632-1호 정조어필과 기족진찬도, 영조옥책 등의 왕실 관련유물이 공

개된다.

1부 '외규장각 의궤'에서는 정조대에 규장각에서 편찬한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물이 전시된다. 또한 병인양요 당시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로 약탈된 후 2011년에 반환 받기까지의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실 행사 중 경사와 정례 관련 의궤를 공개함과 동시에 의궤 제작과정도 전시된다.

2부 '조선왕실 혼례이야기'에서는 의궤의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왕실혼례의 기록인 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왕실의 혼례과정을 재구성했다. 특히,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를 횡관으로 제작해 왕실 혼례 행렬의 전체 모습을 재현



정조간통천봉도감의궤

했다.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와 <한중록>에서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혼례를 살펴볼 수 있다.

정혜숙 기자

Advertisement for Buddha Shopping (불교달력) featuring 2013 calendars and products. Includes text like 'since 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and various product prices and discounts.